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광주 -5/4℃ 목포 -4/4℃ 여수 -1/6℃

단기 4346년 (음력 11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396호 1판 2013년 1월 7일 월요일

인수위 출범…朴당선인 조각 착수

이달말께 총리 후보 지명…박흥석·김장수 등 위원 22명 임명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3·4·5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인수위원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첫 상견례를 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책임감 있게 일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당선인과 상견례 후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와 워크숍을 열어 인수위 예산안과 운영규정 등을 의결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수위는 취임식 전날인 내달 24일까지 50일간 국정 인수 활동을 하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다.

박 당선인은 이와는 별도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조각 작업에 들어갔다.

일정상 박 당선인이 이달 말께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활한 대야(對野)관계를 위해 보수색이 옅은 인사, 호남 출신 인사를 총리로 선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경제통' 인사를 총리로 기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리로부터 국무위원 후보를 3~4배수 제청받아 장관 후보자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박 당선인은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 9개 분과위 간사, 인수위원, 당선인 비서실 팀장 등 2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대신 발표한 2차 인선안에 따르면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에는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발탁됐다.

또 인수위 총괄간사인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에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임명됐고 나머지 8개 분과위 간사는 ▲정무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교·국방·통일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경제1 류성걸 의원 ▲경제2 이현재 의원 ▲법질서·사회안전 이혜진 동아대 교수 ▲교육과학 곽병선 전 경인여전 총장 ▲고용복지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여성·문화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등이다.

이날 임명된 22명의 인수위원에는 해남 출신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경제1분과)과 광주 출신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간사 등 2명의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인수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과 함께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에 곡성 출신의 이정현 최고위원, 홍보팀장에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지낸 변추석 국민대 조형대학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눈부신 설원…신나는 눈썰매 6일 전북 남원 지리산 바래봉에서 열린 '제2회 눈꽃축제' 관람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설원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눈꽃축제는 다음달 11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朴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돌아온 이정현

조각·靑 인선…새 정부 진용 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인 이정현〈사진〉 최고위원이 돌아왔다. 대선이 끝나고 16일 만인 지난 4일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임명됐다. 이 최고위원은 박 당선인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신임이 각별하다는 점에서 인수위와 비서실 사이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내외에서는 비서실이 이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조각(組閣)과 청와대 인선을 사실상 설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이들을 비서실에 두고 첫 내각 구성과 청와대 인선 등 새정부 구성에 핵심적인 일들을 직접 관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정·관계에서도 이정현 최고위원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최고위원이 그 누구보다도 광주·전남의 현실을 잘 알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뛰었기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은 6일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해서 최근 입을 봉해 버리는 외과수술을 했다"고 익살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밝힌 뒤, "귀로 잘 듣겠으며 모든 것은 대변인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2004년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공보 업무를 전담해왔다. 박 당선인이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패배 이후, 평의원으로 있을 때에는 '대변인격'(格)이라는 직책 아닌 직책을 맡아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중을 대변했다. 박 당선인도 "그의 말은 한번도 (제 생각과) 다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깊은 신뢰를 표시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3년 1월11일(금)
입학문의 062)605-1112 062)605-1023

국립공원 무등산 5대 과제 ❷ 방송·통신시설 통합

절경 망치지 않게 한데 모아야

방송·통신사 송·중계 철탑 6기 난립

광주시 개입 방송 3사 직접 나서야

무등산 정상 주변에 산발적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시설 송신철탑 6기는 '어머니 산' 무등산의 절경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흉물로 꼽힌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이후 광주시민들 사이에 방송·통신시설의 통합 및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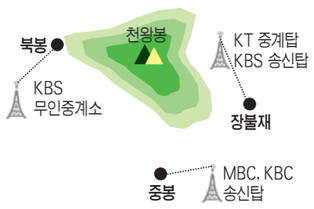
하지만, 해당 시설을 설치한 KBS, MBC, KBC 등 방송 3사와 KT는 묵묵부답이다. 광주시도 언론사와 연관된 시설인 탓에 '눈치보기식'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송 3사가 통합·이전 작업에 직접 나서고, 광주시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 인근에는 지난 1966년 KBS가 장불재 등 2곳에 설치한 송신탑 2기와 무인중계소 철탑 1기를 비롯한 KT 제2중계소 철탑 1기, MBC와 KBC 송신탑 각 1기 등 총 4개 회사 6기의 철탑이 설치·운영중이다.

지난 1997년 이전까지는 방송 3사의 송신탑 5기(3개소)와 한국통신의 송신탑 4기(2개소) 등 모두 5개소의 송신탑 9기가 있었으나, 무등산 정상 회복 운동이 시작되면서 철탑 3기(1997년 한국통신·2003년 누애봉 KT 1중계소)는 철거됐다.

▪ 무등산 방송·통신시설 위치도



▲ 무등산 방송·통신시설 현황

운영기관	신설년도	점유면적(㎡)	철탑수량	건물동수
KBS	1966	4,113	2	3
MBC	1970	3,433	1	2
KBC	1995	2,000	1	1
KBS 무인중계소	1966	198	1	1
KT 제2중계소	1967 (1993년 증축)	9,186	1	5

당시 KT는 제 2중계소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등 정부 13개 기관의 비상망 운영 등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해 지역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방송 3사도 지난 1998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통합할 위치를 장불재로 정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KBS를 제외한 MBC와 KBC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들어 이전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4월 환경부에 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비지원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광주지역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언론사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시설 통합은 결국 해당 시설을 설치한 회사에서 직접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광주시도 방송사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합 절차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